



22132283



KOREAN B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B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B – NIVEL MEDIO – PRUEBA 1

Friday 10 May 2013 (afternoon)
Vendredi 10 mai 2013 (après-midi)
Viernes 10 de mayo de 2013 (tarde)

1 h 30 m

TEXT BOOKLET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booklet until instructed to do so.
- This booklet contains all of the texts required for paper 1.
- Answer the questions in the question and answer booklet provided.

LIVRET DE TEXTES –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 livret avant d'y être autorisé(e).
- Ce livret contient tous les textes nécessaires à l'épreuve 1.
- Répondez à toutes les questions dans le livret de questions et réponses fourni.

CUADERNO DE TEXTOS –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e cuaderno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te cuaderno contiene todos los textos para la prueba 1.
- Conteste todas las preguntas en el cuaderno de preguntas y respuestas.

본문 A

사진 공모전



“내 키보다 큰 자전거”

지난 2월 초 캄보디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내 키보다 큰 자전거에 누이는 엉덩이도 붙이지 않은 채 하나뿐인 안장은 동생에게 내어주고 힘차게 자전거를 저어 갑니다. 오누이의 정에 마음까지 훈훈해집니다. 이런 사랑이면 힘겨운 세상도 능히 헤쳐나갈 것 같습니다.

응모 요령: 소재나 주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과도한 보정은 사양합니다. 합성한 사진도 곤란합니다. 촬영 장소와 촬영 시간을 밝혀 주시고, 짧은 글도 덧붙여 주십시오. 사진 사이즈를 2mb 이상으로 올려주세요.

응모 방법: seokgu@kyunghyang.com 으로 사진과 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내 주세요.

상품: 매월 한 명의 수상자를 뽑으며 “이달의 최우수작” 수상자에게 디지털 카메라 1대 수여.

발표 및 게재: 매주 <주간경향> 지면. 월별 최우수작은 다음달 첫째주.

<주간경향> 2011.3.22

본문 B

패션축제

코엑스서 모레 개막식

다음 달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주최하는 패션 페스티벌이 열린다. 9일에는 군 입대를 앞둔 가수 비(사진)가 무료 콘서트를 연다. 페스티벌의 중심은 삼성동 코엑스 광장이다. 1일 오후 7시 심포니 공연과, 8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연휴 사흘간 오전 10시~오후 8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국내외 75개 유명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패션 마켓”도 차린다. 최대 50% 세일하는 곳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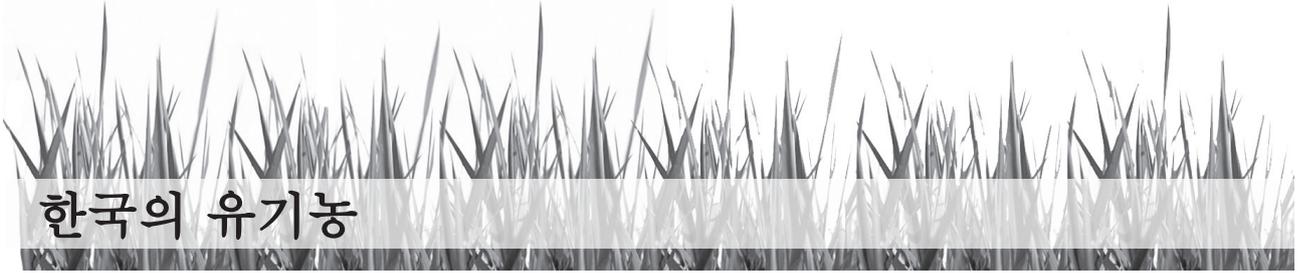
2일엔 컴퓨터 게임이나 만화 속 등장인물로 분장하는 코스프레 경연이 오후 1시, 오후 7시에는 웨딩 패션쇼, 8시에는 강남 유명 디자이너 패션쇼가 열린다. 3일 오후 5시에는 코엑스 광장에선 메이크업쇼를, 7시 30분에는 세계 남성 패션쇼를 구경할 수 있다.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에는 국제평화마라톤대회가 열린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 코엑스 주변과 청담동의 48개 음식점은 음식값을 깎아준다. 강남구 내 주요 백화점의 가을 정기세일도 페스티벌 기간과 맞물린다.

행사의 마지막은 한류 스타 비가 장식한다. 비는 9일 오후 7시부터 도산공원 앞에서 두 시간 동안 단독 콘서트를 한다. 그는 강남구 홍보대사다. 콘서트 시간을 전후해 도산대로가 통제된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강남 패션 페스티벌을 한류 관광의 중심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연휴 기간 중 중국 관광객 1만50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11.09.29

본문 C



한국의 유기농

- ① 우리나라의 유기농은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 26 -]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 유기농의 메카로 알려진 충남 홍성군 지역은 1975년에 유기농을 향한 첫걸음을 뗀 뒤, 마을 전체가 유기농사를 짓는 공동체를 이뤄냈다. 강원 원주에서 시작한 한살림운동은 농촌에서의 유기농사와 함께, 도시에서의 유기농 농산물 소비자 운동으로 자리잡았다. 이후 19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농약과 화학비료 없는 농사가 확산되면서 가파른 성장의 길을 달려왔다.
- ②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수도권 최대의 유기농 단지인 경기 남양주의 팔당 등지에서 제 17차 세계유기농대회가 열린다. 대회를 주최한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은 “유기농은 생명이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건강한 지구를 위한 우리의 비전” “미래세대를 위한 배려” “유기농업과 자연생태의 복원” “유기농업을 위한 공정한 기회 제공” 등 4대 주제 발표의 제목에서 포부와 지향점을 읽을 수 있다.
- ③ 이번 유기농대회를 계기로 친환경 농산물의 개념을 세계 표준인 “친환경은 곧 유기농산물”로 점차 발전시켜가야 한다는 과제도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친환경 재배면적 19만4006ha 가운데 세계 표준에 [- 27 -] 유기농은 8.0%인 1만5518ha에 불과했다.
- ④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의 [- 29 -]은 세계 무대에서는 친환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무농약 또는 저농약 농산물이었다. 무농약은 농약은 금지하되 화학비료를 [- 30 -] 허용하는 농산물이고, 저농약은 농약 사용을 일정량 [- 31 -]로 제한한 농산물이다.

<한겨레신문> 2011.9.21

본문 D

카풀 트위터



트위터에 올라온 귀성길 카풀 신청글. “이번 추석에 자동차 카풀하려고 합니다. 출발은 9월 9일 밤 11시쯤 상암동이고요. 도착지는 전북 남원입니다.”

- ① 회사원 박성길 (39) 씨는 추석 귀성길에 “트친(트위터친구)” 들과 카풀을 하겠다는 글을 트위터에 띄웠다. 11인승 차량을 갖고 있는 그가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기 위해선 가족 4명 외에 두 사람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성길씨의 말: “예전에도 카풀을 할까 고려해 봤지만 카풀 사이트나 포털사이트 카페는 왠지 꺼림칙하게 느껴졌다.” “트위터는 사진과 프로필, 과거 트윗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요. 동승자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대 대학생 2명을 동승자로 모집해서 버스 전용차로도 탈 수 있고 기름값도 나눠 부담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다.”

- ② 서울 자양동에서 대전으로 귀성하는 박성훈 (29) 씨도 트위터를 통해 고향 가는 길에 동행할 “트친” 들을 모집했다. 정보기술 (IT) 업종에서 일하는 박씨는 트위터의 IT 관련 소모임에 카풀을 하자는 글을 올렸고 하루 만에 트친 두 명을 구했다.

박성훈씨의 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보다는 온라인상으로 알던 사람들이 더 편하게 다가온다.” “서로 관심사도 비슷하고 연령대도 비슷해 귀성길이 심심하지 않을 것 같다.”

- ③ 대학생 김진희 (24·여) 씨는 적극적으로 나서 트친의 차를 구한 경우다.

김진희씨의 말: “이번 여름 수해 때 느낀 트위터의 힘을 카풀을 구하면서 다시 확인했다.” “리트윗을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트위터의 매력이다.”

- ④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의 김용찬 교수는 트위터 카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김교수의 말: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경우 나이나 직업 등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이 연결돼 이용자 간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카풀의 경우 우리 사회에 전부터 있던 문화이지만 “정보 공유” 를 중시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일보> 2011.09.10